

38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자신의 몸, 정신, 영혼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새로운 성장 방향, 새로운 교훈을
계속 찾아나서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오프라 윈프리

양to the치기 38일차

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때문에 서파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워하고, REM수면 상태의 사람을 깨우면 급성 각성 상태로 돌아온다.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의 비-REM수면은 온전한 휴식을 통해 진정한 심신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비-REM수면이든 REM수면이든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활동은 영향을 받게 된다.

* 각성 상태: 눈을 뜨고 깨어 있는 상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면은 심신의 회복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수면을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라고 했다. 수면은 ‘비-REM수면’과 급속한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REM(Rapid Eye Movement)수면’이 교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REM수면 이후 REM수면이 진행된다. 비-REM수면은 4단계로 진행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수면이다. 이러한 수면의 양상은 수면 단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뇌파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막 잠이 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에서 뇌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세타파란 열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는 언제든 깰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상태이다. 이 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뇌파가 각성 상태보다 서서히 느려진다.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에 ‘수면 방추’와 ‘K-복합체’라는 독특한 뇌파의 모습이 보인다. 수면방추는 세타파 중간마다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인데, 분당 2~5번 정도 나타나며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체는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위로 갑자기 빠르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험에 의하면 K-복합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이것은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깊은 수면의 단계로 진행되면 뇌파 가운데 가장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타난다. 3단계와 4단계는 ‘델타파’의 비중에 따라 구별된다. 보통 델타파의 비중이 20~50%일 때는 3단계로, 50%를 넘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지는 상태가 되면 4단계로 본다. 때문에 4단계 수면은 ‘서파수면(slow-wave-sleep)’으로도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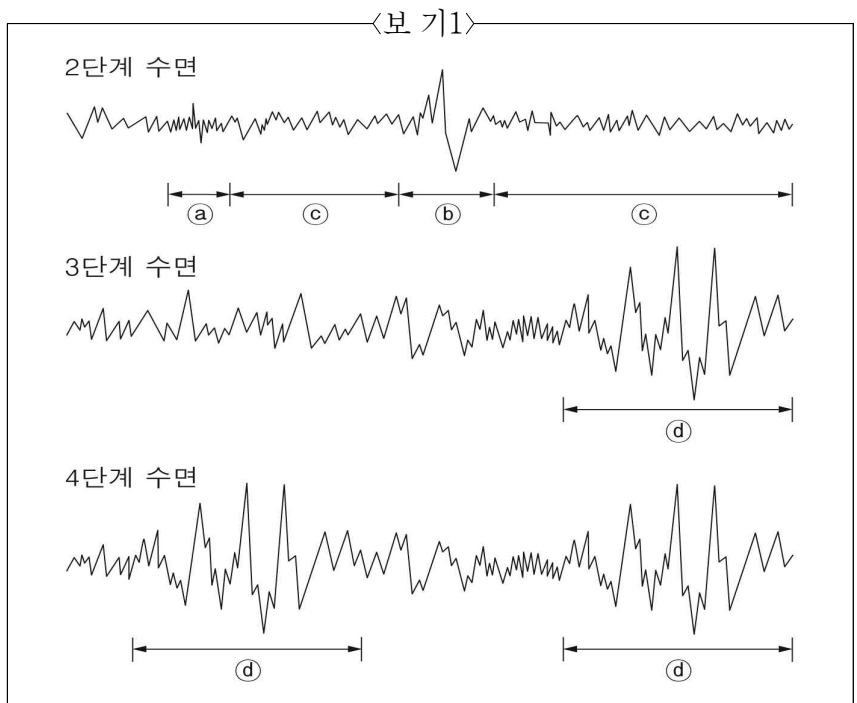
서파수면은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각성 수준의 75%까지 감소되는 깊은 잠의 상태이고, ㉠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수치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보기1>은 수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모습을 나타

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2>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2>

-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 재형이는 열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 수민이는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깨어 깊이 잠들지 못했다.

- ①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이 빈번히 나타났겠군.
- ②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와 ㉢가 여러 번 나타났겠군.
- ③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선우에 비해 ㉡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④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가 나타나는 단계와 ㉠이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겠군.
- ⑤ 수민이는 수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가 활성화되지 못했겠군.

양to the치기 38일차

3. 윗글을 읽고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성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 ②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최소화되는 단계이다.
 - ③ 각성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정신적 피로보다는 신체적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 ⑤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 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불안, 인간 소외 등 예술적 정서나 의미를 과도하게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

이 사조는 예술 표현이 단순할수록 오히려 현실 세계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단순성의 원리’와 인간의 지각은 총체적으로 이해된다는 ‘확장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술 양상은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 건축에서는 단순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성과 확장성의 원리는 특히 조형물에서 잘 나타난다.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의 최소화를 통한 ‘단순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매개의 최소화는 작품의 재료, 소재, 형태 등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상,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작품에 사용되는 매개가 적고 단순할수록 감상자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감상자의 인식 속의 보편적 형상과 일치시키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둘째,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은 기하 추상에 의한 ‘확장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이 놓인 공간은 작품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놓인 공간은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그 작품이 놓인 공간의 관련성 속에서 감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하 추상에 의한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은 기존의 조형물이 설치된 방식과 달리 주로 바닥에 배치된다. 이로써 작품 자체가 놓인 공간과 감상자가 서 있는 장소는 관람만을 위한 전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니멀리즘 음악은 일정한 강세 및 빠르기를 사용한다.
 - ② 미니멀리즘 조형은 매개 요소를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한다.
 - ③ 오브제 트루베는 미니멀리즘 조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④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
 - ⑤ 미니멀리즘은 절제된 표현에 의해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다.

5.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무제-L빔들>은 로버트 모리스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회색 빛깔의 두꺼운 나무로 된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배치하여 작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
- ② L빔들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감상자는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겠군.
- ③ 감상자는 배치되어 있는 L빔들을 감상할 때,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주위의 배경으로 시선이 확대되겠군.
- ④ 실제 산업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개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매개요소로 사용하여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더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게 하는군.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면서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그들이 ㉠ 평소 많이 읽고 뜻을 터득하는 데에만 힘써 자세히 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 쫓기듯 바빠 책을 많이 읽는 데에만 버릇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점을 경계하여 위와 같은 버릇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별도로 독서의 체계를 세워 ㉢ 자신에게 적합한 책 중에서 더욱 절실하고도 긴요한 것을 택해야 한다. 또한 책을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 우선 한두 단락을 보고 그 부분의 이해가 끝나면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 책 한 권이 다 끝나거든 다른 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기운을 고르게 하여 숙독(熟讀), 숙고(熟考)해서 한 글자 한 구절까지 다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 여러 학자들의 주석(註釋)을 하나하나 독파한 다음, 그들의 ㉤ 옳고 그름을 비교하여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복 음미하여 그 의미와 이치를 몸으로 체득

양to the치기 38일차

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희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시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구나’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

6.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기 >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 밑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③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④
읽기 후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 해야 한다. 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국의 왕자 적성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떠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지만 돌아오던 길에 형인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칼에 찔려 장님이 된다. 성의는 성에 표류하였다가 중국 사신에 의해 황제를 만나게 되고 공주의 벗이 된다.

각설. 안평국 왕비 병세가 쾌복되었으나 성의의 사생 존물을 몰라 밤낮으로 슬피하더니 하루는 ㉡ 성의 있던 방에 들어가니 산호 서안에 만 권 서책은 의구(依舊)하나 형용(形容)*이 둔절(頓絶)*한지라. 심회 감창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옷깃을 적

시며 슬피 통곡하는데, 홀연 기러기 슬피 울거늘 왕비 울음을 그치고,

“네 비록 금수이나 성의의 소식을 전하고자 왔느냐?”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기러기 또 울거늘 괴이히 여겨 시녀에게 묻는데, 큰 소리로 가로되,

“이 기러기는 공자가 기르시던 바이라. 연전에 공자님 임행(臨幸)시에 기러기를 쓰다듬어 경계하여 가로되, ‘네 나와 더불어 일시도 떠남이 없더니 내 이제 곤전(坤殿)* 환후로 하여 만리원정에 가 약을 구하여 올지라. 기간 원별을 당하매 창연한지라. 너는 모름지기 처소를 떠나지 말고 부디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만일 무슨 소식이 있거든 곧 전하라. 지금 떠나면 언제 서로 모이리요.’ 하시니 기러기 대답하는 듯 응하여 울거늘 공자가 등을 어루만져 가장 사랑하시고 가신 후 우금 나가지 아니하옵기로 궁녀 등이 밥을 먹이옵더니 요새 밤이면 슬피 울거늘 이상하오나 내전이 초원(稍遠)*하옵기로 낭량이 모르심이니이다.”

왕비 청파(聽罷)에 시녀 등을 대책(大責)하사 왈,

“여등(汝等)이 이런 말을 나더러 아니 한다?”

궁녀 등이 황송하와 머리를 숙이더라. 왕비 즉시 기러기를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 비록 미물이나 네 임자 있는 곳을 알지니 서천에 들어가 살았느냐, 망망대해 중에 어별(魚鱉)의 밥이 되었느냐? 만일 살았거든 내 앞에서 세 번 올라.”

이르시니, 기러기 목을 늘리어 세 번 울거늘 왕비 기뻐하시어 가로되,

“네 아는도다.”

이로써 즉시 한 봉 서찰을 쓰시며 가로되,

“네 임자가 살았거든 이 편지를 전할소나?”

기러기 세 번 머리를 조아리거늘, 왕비 즉시 서찰을 기러기 다리에 매고 경계하여 가로되,

“네 두 날개로 만리를 가는 재주라 부디 이 글을 잘 전하라.”

이르니, ㉠ 기러기 세 번 소리하고 두 날개를 치며 청천에 올라 운간(雲間)으로 서북을 향하여 가는지라.

<중략>

성의 옷을 고쳐 벽옥을 따라 ㉢ 금각달에 올라가니 공주 반겨 좌를 주고 물어 가로되,

“그 사이 객고 어떠하뇨?”

성의 큰 소리로 가로되,

“천생이 성상의 하해지덕을 입사와 아직 일신이 편하나이다.”

공주 시녀를 명하여 진수성찬을 내오며 향운(香醞)*을 권하며 상을 물리매, 흑 단저도 불고 흑 단금도 희롱하며 각각 한 수시를 지어 화답하여 서로 칭찬하더니, 문득 월색이 명량하며 홀연 동남으로부터 기러기 슬피 울며 점점 가까이 와 중천에서 금각당을 맴돌아 울거늘, 공주와 좌우 시녀 나와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며 심히 괴이히 여겨서 서로 볼 즈음에 성의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생각하되, ‘이 짐승이 반드시 나의 기르던 기러기로드.’ 하고 정신이 어린 듯 취한 듯하여 앉았더니, 기러기 두 날개를 펴며 점점 내려와 성의의 앞에 앉으며 목을 늘리어 슬피 울거늘, 성의 그제야 쾌히 본즉,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덤석 안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가로되,

양to the치기 38일차

[D] 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머르거든 바갯* 물 마시니
 이리호는 가운데 즐거오미 쏘 인는다
 늑의외* 부운(浮雲)* 궂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랴.
 <제6수>

[E] 도원(桃源)이 잇다 호야도 네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호니* 이 진짓 거괴로다
 이 몸이 쏘 엇더호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호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 * 활수: 흐르는 물
- * 청뢰: 맑은 바람 소리
- * 금슬: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풍월연하: 바람, 달, 안개, 노을.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
- * 즈차리: 산나물의 일종으로 추정됨.
- * 버구렛: 바구니의
- * 늑의외: 다른 사람의
-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 만동호니: 골짜기 안에 가득 하니
- * 헬로다: 헤아리겠다
- * 디: 축대(築臺)
- * 산채갱: 산나물로 만든 국
- * 바갯: 바가지의
- * 부운: 뜬구름

12.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탄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주변 경치를 묘사한 후, 그 속에 머물며 즐거워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에는 [D]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④ [C]와 [D]는 모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그러한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는 화자가 처한 공간을 이상향에 견주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해석

⑤④⑤④①
⑤②③⑤③
④①①

[1~3] <출전> Neil R. Carlson, 「생리심리학」

1.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수면의 과정을 비-REM수면과 REM수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글로,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4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20~50%', '50%'와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수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글 전체에서 수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전체 흐름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와 3문단 두 번째 문장의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면에 대한 이해와 수면방추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은 수면방추 ㉡는 K-복합체 ㉢는 세타파 ㉣는 델타파이다. 이 중 델타파는 깊은 수면 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제대로 잠을 이루이지 못하는 재형이는 수면이 단계별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게다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므로 델타파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와 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군'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으나 수면이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깊은 잠의 단계에서 측정되는 델타파는 수면이 보다 선우에게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선우는 깊은 수면을 유지하였고, 수면이는 소리가 날 때마다 자주 깬다며 수면도 유지하지 못했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선우가 수면이보다 K-복합체와 수면방추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재형이는 자다 깨다를 반복하여 잠이 유지되지 못했으나,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재형이가 선우에 비해 수면방추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K-복합체가 소음으로 인해 잠이 깨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라고 진술되어 있고, 6문단에서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REM수면이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출전>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

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미니멀리즘은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재료, 소재, 형태 등의 매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가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기 쉽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 두 번째 문장의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 네 번째 문장의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 다섯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의 특징은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는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바닥에 배치한 것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시선을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이동시켜 감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 작품이 놓인 공간을 관람만을 위한 전방대로서가 아닌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으로 만들어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 마지막 문장의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 네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 여섯 번째 문장의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단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은 감상자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6~7] <출전> 이이, 「성학집요」

6.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를 보면 정약용은 의심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독서 태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옳고 그름을 비교한다는 의심의 과정을 통해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한다는 ㉠의 독서 태도가 가장 유사하고 볼 수 있다.

7. [출제의도] 독서의 전략 파악하기

이 글에는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독서 계획 세우기, 독서 능력에 맞게 분량 조절하기,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 탐색하기,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하기 등의 독서 전략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글의 구조를 통해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은 나타나 있지 않다.

[8~11] <출전> 작자미상, 「적성의전」

8.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안평국 왕비는 성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러기를 통해 성의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므로,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성의는 도사의 말을 듣고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으로 떠났다. ④ 안평국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왕비는 항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으며, 그 행실이 불측하다고 했다. ⑤ 성의의 어머니인 안평국 왕비는 성의가 구한 일영주를 먹고 병이 나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성의는 '금각당'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으므로, '금각당'을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성의 있던 방'에서 기러기가 안평국 왕비의 편지를 다리에 매고 출발하여 '금각당'에 있는 성의에게 전달하므로 '성의 있던 방'과 '금각당'은 기러기를 매개체로 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성의 있던 방'에서 왕비는 성의의 부재로 인해 큰 슬픔을 느끼고, '금각당'에서 성의와 공주는 같이 음식을 먹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친교를 나누었으므로 '성의 있던 방'은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금각당'은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안평국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봉서'로 인해 성의는 눈을 뜨게 된다. 따라서, '봉서'의 서사적 기능은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이다.

11.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는다.'는 뜻이므로, 기러기를 통해 성의에게 편지를 보낸 왕비가 했음직한 말이다.

①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을 의미한다. ②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다. ⑤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모르리라', '흐노라' 등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② [A]의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B]의 '술 아래 길쭉 내고 못 우회 덕질 뺌', [C]의 '집 두혜 즈차리 뜯고 문 알퐁 물근 십 기러', [D]의 '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갯 물 마시니'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E]의 '이 몸이 쪼 엇더흐노 무릉인(武陵人)인가 흐노라.'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연 속을 살아가는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D]의 '늬의외 부운(浮雲) 궂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랴'에서 '이시랴'는 설의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⑤ [D]의 '부운(浮雲) 궂튼 부귀(富貴)'는 직유법을 사용한 부분으로, '뜯구름'이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부귀'가 헛된 것이라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따라 감상하기

[A]와 [B]에는 모두 화자가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고, 화자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연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② [A]는 초·중장에서 '지당'에 '활수'가 들어 그 속에 '고기'가 노는 모습과 '송음'에 맑은 바람 소리가 나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종장에서 이를 즐기느라고 돌아갈 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B]는 초·중장에서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덕'을 쌓으니 바람, 달, 안개, 노을이 좌우에서 오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종장에서 이 사이에서 '한가히' 앉자 즐기느라고 늙는 줄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③ [C]에는 화자가 '즈차리' 뜯는 공간인 '집 두혜'와 '물근 십' 걷는 공간인 '문 알퐁'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D]에는 화자가 '버구렛 밥' 먹고 '바갯 물' 마시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④ [C]는 초·중장에서 '즈차리' 뜯고 '물근 십' 걸어 '기장밥' 짓고 '산채갱' 삶아 먹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종장에서 '풍미(風味)이 족(足) 흠도 내 분인가 흐노라'라고 하여 이러한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D]는 초·중장에서 '버구렛 밥' 먹고 '바갯 물'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종장에서 '늬의외 부운(浮雲) 궂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랴'라고 하여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도원'이라는 이상향에 견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무릉인'이라고 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